

# 원자력 사업의 자생력 추구

## 원

자력 사업을 하는 우리 한국중공업(주)는 97년 새해가 뜻깊은 한 해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온상에서 육성되어 온 원자력 산업의 자생 여부를 시험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취약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만 보완하면 전력 그룹과 연합하여 해외로 진출할 방법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실히 공략하여 2000년대에는 세계 시장의 강자로 부상할 수 있는지 여부는 첫 발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경영 혁신

97년은 「5.5.5 운동」의 첫해로서 2001년까지 원가 절감 50%를 달성하고 매출은 현재의 5배인 10조원을 달성하여 세계 5위 이내의 업체로 성장한다는 목표 아래 모든 계획을 수립하여 순조로운 출항을 하였다.

경영 혁신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6개팀의 신바람경영기획단을 구성하여 원가 절감, 납기 단축, 품질 향상,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영업, 기술, 사업 관리, 생산, 건설을 포함한 사업본부를 발족시켜 책임 경영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더한층 고객 지향적인 경영이 될 것이다.

97년은 정부조달협정에 의거, 발전 시장이 개방되어, 해외의 거센 물결이 국내로 몰려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열린 경영」, 「경쟁력 혁신」, 「세계화」의 기치 아래 새로운 한국중공업(주)로 거듭 태어날 것이다.

### 기술 개발

94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원자로 내부 구조물(RVI)의 국산화는 97년 말까지 mock-up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며, mock-up과 병행하여 추진되고 있는 영광 6호기용 실제품의 제작은 올해에도 계속되어 2000년에 제작을 완료할 예정이다.

94년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이미 mock-up 제작을 끝낸 제어봉 구동 장치

(CEDM)는 영광 6호기용 실제품의 제작을 위해 자체 전량을 입고하여 본격적인 제작에 착수할 예정이다.

97년에는 새로이 1,300MWe급 차세대 원전에 설치될 원자로 냉각재 펌프(RCP)의 국산화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의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 품질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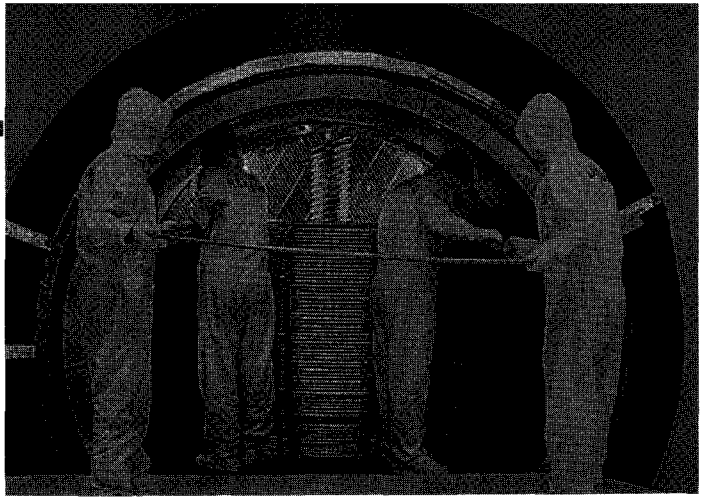
올해의 품질 활동은 △전사 품질 혁신 활동 추진 △자주 검사를 통한 예방 품질 활동 강화 △프로젝트 QA 활동 강화로 품질 체계 확립 △100PPM 품질 활동 수행 △6σ 기법을 회사 현실에 맞게 도입하여 정착시킴으로써, 품질 활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세계의 품질화를 이루도록 추진할 것이다.

### 원전 사업

#### 1. 영광 3·4호기 사업

96년 1월 1일 4호기 상업 운전을

시작한 영광 3·4호기 사업은 사업 기간 동안 수행한 경험을 취합하여 기술경험집을 발간하였고, 10월 19일 영광 현장에서의 준공식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하였다.



국산화에 성공한 중수로형 증기발생기 튜빙 작업 모습

**2. 울진 3·4호기 사업**

국내외의 집중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는 울진 3·4호기용 주요 기자재는 국산화 계획 및 현장 일정에 차질 없이 약 90% 정도가 출하 완료되어 부분적으로 시운전에 돌입하고 있다.

또한 울진 3·4호기 기전 설치 공사는 64% 공정 진도를 달성하였으며, 3호기 원자로는 내부 조립 최종 마무리 공정이 진행중이다.

4호기는 96년 12월에 내부 조립 공사에 착수하였는데, 97년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97년 2월말 예정인 3호기 상온 수압 시험 관련 시스템은 90% 턴오버(turnover)하였으며, 잔여 시스템도 97년초에 턴오버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다.

특히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사고 예방을 중점 관리함으로써 무재해 500만시간을 달성할 것이다.

**3. 월성 2·3·4호기 사업**

월성 2호기용 기자재는 출하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3호기용 기자재는 96년까지 92%가 납품되었고, 97년 5월말까지 납품이 완료될 예정이다.

96년까지 56%가 완료된 4호기는

97년 9월말까지 납품이 완료될 예정이다.

**4. 영광 5·6호기 사업**

97년 1월말부터 한국중공업(주) 공급분 기자재가 영광 현장에 인도될 것이며, 이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과 원활한 기자재 현장 인수를 위해 한중 영광현장사무소를 1월초 개설할 예정이다.

특히 영광 5·6호기에서 새로 국산화가 추진되는 원자로 내부 구조물, 제어봉 구동 장치, 일체형 저압 터빈 회전자축 등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시제품의 제작과 시험을 통해 얻은 경험과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본 제품 제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5. 울진 5·6호기 사업**

96년말에 한국전력공사와 주기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울진 5·6호기는 선행 호기의 경험을 살려 초기 단계부터 완벽한 준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특히 처음 수행하는 원자로 내부 구조물, 제어봉 구동 장치의 기기 설계 업무를 통해 기술력 향상에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6. 북한 경수로 사업 및 해외 사업**

북한 경수로 사업은 기존의 사업준비팀을 북한 경수로 사업 담당으로 확대 개편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이미 L/I를 받은 중국의 진산 3기용 기자재는 97년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기자재 공급을 위한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7. 원전 서비스 사업**

96년도는 영광 3·4호기 오버홀시 신속한 애프터서비스 제공으로 한국중공업(주)의 서비스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능력을 보여준 한 해였다.

한편으로는 운전중인 원전의 서비스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고리 1호기 교체용 증기 발생기 제작, 고리 1·2·3·4호기 TBN 로터 교체 공사, 고리 방사성 폐기물 잡고체 압축기 제작 및 설치 등 많은 부문에서 한국중공업(주)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실시하는 원전 기술 고도화 계획에 따라 한국 표준형 원전 주기기 보수 및 교체 기술 자립을 위한 기술 및 인력 개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